

※엠바고 : 생중계 시작 이후 실시간 보도 가능

유엔총회 기조연설 보도참고자료

2023.9.20.(수)

1. 유엔총회 참석 의의

- 2년 연속 유엔총회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자유, 평화,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시현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
- 북한 핵, 미사일 문제 관련 우리 입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, 법치 기반 국제질서 회복을 위한 연대와 단합 촉구
 - 2024-2025년 임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한 책임있는 역할 수행에 대한 의지 표명
- 유엔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의 의미와 취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우리의 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환기

2. 기조연설 주요 내용 및 의의

- 유엔총회에서의 기조연설(9.20)에서는 “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(유엔헌장 전문)”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 있게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
 - ※ 제78차 유엔총회 기간은 23.9.5(화)부터 24.9.9(월)까지 총 1년간이며, 다수의 정상급 인사들은 9.19(화)부터 약 일주일간 지속되는 고위급 주간 ‘일반토의(General Debate)’에 참석하여 자국 대외정책과 유엔과의 협력에 대한 기조연설을 실시
- 구체적으로, ▲개발 격차, ▲기후 격차, ▲디지털 격차의 3가지 글로벌 격차 문제를 제기하고, 글로벌 격차 감소를 위한 우리의 지원 방향을 제시
 - ① (개발 격차) 올해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ODA 정부예산안 규모를 40% 이상 확대(2023년 4.5조원 → 2024년 6.5조원, 정부예산안 기준)
 - 수원국에 대한 맞춤형 개발협력을 추진하고, 수원국들이 경제, 사회적으로 스스로 도약할 수 있는 교육훈련 ODA 추진

- 교육훈련 ODA에 대한 강조는 과거에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발전을 이끈 우리의 경험이 투영

※ 1년의 추가적인 교육훈련이 9~10%의 소득 증대를 가져온다는 세계은행 보고서 인용

② (기후 격차) 올해 여름 폭우, 폭염 등 극한 기후를 경험한 만큼(지구 기후관측 사상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),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

- 기후 취약국을 돕기 위한 그린 ODA를 확대하고, 대표적인 그린 ODA인 녹색기후기금(GCF)에 대한 우리 정부의 추가 공여 계획을 밝히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재정 기여 요청
- 또한 탄소중립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外 원전,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(CFE : Carbon Free Energy)를 폭넓게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, 한국이 CFE 확산을 위한 오픈 플랫폼인 'CF연합(Carbon Free Alliance)'을 구축할 계획임을 발표

□ 그린 ODA 확대

- o 2025년까지 OECD 개발원조위원회(DAC) 평균 수준으로 확대 추진 중
 - 2015-19년간 우리의 기후·환경 ODA는 전체 양자 유·무상분야 ODA 중 평균 19.6%이며, OECD DAC 평균은 28.1%
- o 녹색기후기금(GCF / Green Climate Fund)에 대한 3억불 추가 공여
 - 우리나라는 GCF 초기재원 조성시 1억불, 1차 재원보충시 2020-23년 2억불을 공여하였고, 금번 2차 재원보충시 50%를 증대한 3억불 기여 계획

※ 녹색기후기금(GCF / Green Climate Fund) :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위해 2010년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(COP16)에서 설립에 합의

□ CF연합(Carbon Free Alliance)

- o (배경) 탄소중립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, 원전, 수소, 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(CCUS) 등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포괄적으로 활용할 필요

- (목표) 무탄소에너지(CFE : Carbon Free Energy) 활용과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민·관 파트너십 구축
- (추진 계획) ‘23.10월 국내기업 중심 ‘CF연합(Carbon Free Alliance)’ 출범 및 주요국, 국제기구, 민간단체와 협업체계 구축으로 국제적 공감대 확산
- (주요 역할) CFE 확산을 위한 민간 이니셔티브 지원, 무탄소에너지 활용과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국제적 기준 마련 등

③ (디지털 격차) 개도국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, 글로벌 디지털 규범 형성과 국제기구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

- 특히,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 『디지털 권리장전』을 제시할 계획임을 밝히고, AI 거버넌스 구축의 구체적 방향 제시를 위한 『AI 글로벌 포럼*』을 개최하겠다고 발표

* AI에 관한 유엔 국제기구 설립 논의 촉진 및 지원 목적

- 작년 9월 뉴욕(유엔총회), 올해 6월 파리(소르본 대학)에서 AI와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안전한 사용 필요성에 대한 화두를 제시했다면, 이번에는 글로벌 의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

○ 또한 2024-2025년 임기 유엔 비상임이사국으로서,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원칙을 가지고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을 천명

- 지난 G20 정상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, ▲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’ 공약에 따라 안보, 인도, 재건 등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 이행, ▲내년 3억불, 추가 20억불 중장기 지원 패키지 마련 등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기여해 나가겠다고 재차 설명
- 북한의 핵, 미사일 프로그램이 한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점과, 러-북 간 군사적 거래 시도가 우크라이나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·평화에 대한 직접적 도발임을 지적

○ 2030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 부산의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강조하고, “연대의 엑스포”로서 부산 세계박람회의 의의와 비전을 전세계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아웃리치(outreach) 전개

- 부산은 ▲6.25 전쟁 당시 공산 세력을 막아낸 자유의 마지막 보루이자, ▲6.25 전쟁 폐허에서 세계 제2의 환적항으로 발돋움하며 ‘한강의 기적’을 이끈 상징적 도시, ▲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이라는 지정학적 중요성 함축
- 부산 박람회 유치를 통해 한국의 성장·발전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고 설명함으로써, 부산 박람회가 유엔이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(SDGs) 및 제78차 유엔총회 주제와도 부합함을 시사

□ 지속가능발전목표(SDGs: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)

-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유엔 회원국이 2030년까지 이행을 약속한 17개의 공동 목표(15.9월 유엔총회 채택)
 - ‘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(Leave no one behind)’ 이 슬로건
- 17개 공동 목표 : ①빈곤퇴치 ②기아종식과 농업 ③보건 ④교육 ⑤성평등 ⑥물과 위생 ⑦에너지 ⑧경제성장 ⑨산업화 ⑩불평등 해소 ⑪지속가능도시 ⑫지속가능소비생산 ⑬기후변화 ⑭대양, 바다, 해양자원 ⑮생물다양성, 생태계 ⑯평화, 제도 ⑰이행수단, 글로벌 파트너십

□ 제78차 유엔총회 주제

-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 : 모두를 위한 평화, 번영, 진전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2030 의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(SDGs) 달성 노력 가속화
- (영문) Rebuilding trust and reigniting global solidarity: Accelerating action on the 2030 Agenda and it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owards peace, prosperity, progress and sustainability for all

□ 부산 세계박람회 주·부제

- 주제 : “세계의 대전환,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” (Transforming Our World, Navigating Toward a Better Future)
- 부제 ▶ 자연과 지속가능한 삶 (Sustainable Living with Nature)
 - ▶ 인류를 위한 기술 (Technology for Humanity)
 - ▶ 돌봄과 나눔의 장 (Platform for Caring and Sharing)

끝.